

# 광주은행, 지역 중기·소상공인 밀착 상생금융 '호평'

금감원,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1위  
저신용·담보 부족 기업 대출 '앞장'  
올해 1조3000억원 편성 지원 나서  
"지역 자금난 해소 지원책에 최선"

올해로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은행이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지역 밀착형 상생금융이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에서 중소형그룹 1위에 선정됐다.

'관계형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재무재표 같은 계량 지표 외에 기업의 기술력이나 차주의 전문성 등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경우 3년 이상의 대출 및 지원투자, 경영자문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17곳을 규모에 따라 대형과 중소형그룹으로 분류하고, 관계형금융 취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광주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에서 중소형그룹 1위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은행 제공

결과, 중소형그룹에서 광주은행을 1위로 선정했다. 업무협약 체결 건수, 컨설팅 실적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도 관계형금융 우수은행에 선정됐던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취득한 정보 등을

대출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각종 업무협약 체결과 적극적인 금융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은 지역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

기 위해 올해 총 293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과 4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캐시백'을 시행해 161억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 4월 지방은행으로는 유일하게 서민금융진흥원에 48억원을 출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을 실행했으며, 올해에도 서민금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이뤄진 상생금융 지원에 1조303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생 밀착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화점포인 '포용금융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2금융권 및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고객을 1금융권과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지역 상생금융 지원으로 광주은행은 지난 8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되는 등 금융산업 위기 속에서도 명실상부한 우수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글로벌 매체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Forbes)'와 'CNBC'에서 각각 '2024년 세계 최고의 은행'과 '2024 아태지역 최고의 은행'으로 선정했다. 특히 광주은행은 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제치고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계 최고의 은행' 국내 3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고병일 은행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의 전망성을 토대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지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품 팝업스토어' 개최

11~13일 ACC 플라자브릿지

문화예술적 감성과 개성 넘치는 수공예품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플라자브릿지에서 열린다.

7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3일간 광주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플라자브릿지에서 2024년 가을철 우수공예품팝업스토어를 마련한다. 지역의 공예문화상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수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해마다 봄·가을철에 도심 핫플레

이스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올리공방(도자) △수제뜨(섬유) △센시블(금속, 주얼리) 등 23개 수공예공방과 나주전연염색박물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 수공예 공방들은 △도자 △섬유 △가죽 △레진 △금속 △목공예 △전연염색 분야의 다양한 약세서리, 생활용품, 잡화류 등을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blog.naver.com/o-hands), 인스타그램(@\_ohands\_), 광주디자인진흥원 누리집(www.gdc.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나다운 기자

## 광주신세계, '전남 섬 방문 활성화 캠페인' 전개

12월15일까지 '섬 도장찍기 챌린지' 3년째 진행...기부형 프로젝트 호평

지난 1995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돼 지역과 상생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신세계가 전남 섬 지역 방문 활성화를 목표로 캠페인을 시작한다.

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2년 시작해 3년째 열리고 있으며 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초·중·고학생들에게 전자책 이용권을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에 나선다.

광주신세계는 한국섬진흥원과 '한국섬 도장찍기 챌린지 시즌3'을 시작한다. 섬 도장찍기 챌린지는 전남도의 소멸 위험 섬들을 알리고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광주신세계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 협업한 프로젝트로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약 70일간 진행된다.

섬 도장찍기 챌린지는 참여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목표를 성공하면 참여자와 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기부형 챌린지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챌린지' 탭에서 '한국 섬 신세계 도장찍기 챌린지'를 검색해서 시즌 3에 참여하면 된다. 챌린지는 섬 방문 챌린지와 걷기 챌린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섬 방문 챌린



지는 진도의 상조도, 하조도, 관매도를 방문해 챌린지 해당 게시판에 사진 인증을 남기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본인인 있는 곳에서 걷기를 통해 걸음수를 더해 걷기 챌린지 성공을 도울 수 있다. 섬 방문 챌린지와 걷기 챌린지는 각각 50명, 5000만 걸음을 목표로 진행된다.

광주신세계는 섬 방문 챌린지나 걷기 챌린지 중 하나라도 목표를 달성할 경우 진도 조도초·거차분교·접도분교·모도분교·가사도분교에 재학중인 학생 49명에게 전자책 연간 이용권을 선물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챌린지에 동참해준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챌린지 참여를 위해 섬을 방문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순수건·방석·팔토시 50개를 제공하며, 걷기 챌린지 참가자들에게는 배달의 민족 1만원 기프트콘 500매를 추첨해서 선물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22년 9월 한국섬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섬 관광 활성화와 ESG경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수 개도, 하화도, 사도를 대상으로 섬 방문 챌린지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여수의 20인 미만 섬 주민 80개 가구에 설탕과 주방세제 등 생활품 80세대를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완도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를 대상으로 섬 방문 챌린지가 진행됐다. 이후 완도 지역 20인 미만 섬 주민들에게 두유와 땅콩약과 등 7만원 상당의 생활품을 담은 선물세트 120세트가 전달됐다.

도장찍기 챌린지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섬진흥원 교류협력팀(062-802-1287)으로 하면 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현지법인으로서는 전남의 섬지역 방문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섬 도장찍기 챌린지에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상생활동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나다운 기자

## 홈플러스, 강정 브랜드 '솔솔' 신규 론칭

'한판닭강정' 등 총 6종

홈플러스가 9일 강정 브랜드 '솔솔'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델리 주력 육성 상품으로 닭강정 등 '강정'을 낙점하고, 신규 강정 브랜드 '솔솔' 론칭을 준비했다.

'솔솔'은 "가마·솔" 비법 한·솔 강정의 약자로, 가마솔에서 조리한 것 같은 강정의 맛과 식감을 마트 델리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강정 브랜드다. 패키지도 가마솔을 형상화 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적용했다. △100% 닭다리살과 특대 사이즈 새우를 사용했으며 △식어도 바삭함을 유지하는 꾸덕한 특제 소스 △정통의 맛부터 최근 인기인 마라맛까지 전문점 이상으로 다채로운 맛이 차별화 요소다.

솔솔은 '식어도 바삭하고 맛있는 강정'을 선보이기 위해 특제 소스를 적용했다. 온도별, 배합 비율별, 경과시간대별 소스 점도 변화를 면밀히 테스트해 마치 실처럼 늘어나고 식어도 잘 굳지 않는 최적의 소스를 만들어냈다.

특제 소스는 강정 전체에 골고루 버무려지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먹더라도



마치 가마솔에서 조리한 것처럼 바삭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조청살엿, 사양별꿀 등 고급 재료를 사용해 맛의 완성도를 높였다.

솔솔은 총 6종으로, '한판닭강정'은 국내산 청양고추와 조청살엿을 고온에서 장시간 끓여 끓고 진한 맛을 자랑하며, '허니닭강정'은 국내산 사양별꿀을 함유해 '단짠단짠(달고 짜고)' 남녀노소 좋아하는 맛을, '매콤간짜닭강정'은 매콤새콤 짭짤한 맛을 구현했다. '버라이어티 닭강정'은 한판, 갈비양, 꿀마늘닭강정 3가지 맛을 한 번에 담았다. 가격은 각 1만5990원이다. 나다운 기자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제공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시범 운영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 마련, 평가대행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해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청 평가위원과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

행해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평가건수가 많고 평가위원도 풍부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5000만원~1억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소영 기자